

고려대, 포스코 판결 5주년 세미나

포스코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논의

2013년 01월 04일 (금) 14:40:04

송아영 기자 ☎/++# 5# 1**~*

[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고려대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7일 오후 3시 대항상공회회소 중회의실에서 ‘포스코 판결 5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1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 행사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고려대 ICR센터와 한국연구재단 Social Science Korea ‘시장경제와 법질서’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2007년 11월 22일 선고된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 경제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중요판결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고된 지 만 5년이 된 포스코 판결의 의미와 발전방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코 판결 당시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판결의 의미를 되새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역들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대법원장이며 포스코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이용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원 판결 재조명의 의의에 대해 기초연설을 하며, 포스코 판결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지형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강평을 할 예정이다.

이 날 사회는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포스코 판결 당시 주심 재판연구관이었던 이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포스코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포스코 판결 당시 재판연구관이었던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판사(부장판사)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형배 시장감시국장

이 말한다.

© 한국대학신문 2013년 11월 13일 발행 전채 및 재배포금지 8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